

# 한국 현대단독주택 전이공간의 경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Boundary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al Space in Modern Korean Houses

김해영\* / Kim, Hae-Young

곽경숙\*\* / Kwak, Kyoung-Suk

김형우\*\*\* / Kim, Hyung-Woo

### Abstract

As societal developmen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and changes the structure of society, the needs of the residents have been varied. As a result, the spaces in Korean houses have also been varied. This phenomenon can be found in both external and internal spaces; a transitional space, which connects the outside space and the inside space, is formed as transition occurs at each phase of movement. As the importance of external and internal spaces is emphasized, and as internal spaces are extended to the exterior, various forms of transitional space are needed.

In this study, the boundary types of internal/external spaces are analyzed through transitional spaces that are formed in relation with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Based on the analysis, transitional spaces in modern Korean houses are classified into the addition type, the cutting type, and the connection typ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ransitional spaces in detached houses tend to be placed closely to rooms and a public space, and in terms of material use, the externalization of internal spaces is occurring.

키워드 : 전이공간, 유형, 경계, 한국현대단독주택

Keywords : Transitional space, A type, Threshold, Modern korean houses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단독주택은 사회의 발전에 따른 생활의 질적 향상과 거주자의 다양성 추구에 따라 주택에 있어서 거주자의 요구사항들도 그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한국 현대주택에 있어서 공간의 다양화 경향은 내·외부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그 중간적 공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단편적으로 이분화 시키지 않고, 거주자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단계별 전이가 일어나면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다양한 중간영역인 전이공간이 나타났다.

70년대의 전이공간은 단순히 주택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계하는 수단으로 주택공간의 외부로의 연장이라는 단순한 형식의 테라스가 일반적이었다. 80년대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

되었지만, 위요된 독립적 테라스가 등장하면서 90년대 이후 내·외부공간은 강한 연계의 경향이 나타났다.<sup>1)</sup> 이러한 공간들은 내·외부공간의 이분법적인 공간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전이공간으로 나타나 내부공간들과 관계 맺고 소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현대단독주택 전이공간의 경계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전이공간이 개별적 공간이 아닌 내·외부공간과 연계되어 일정한 결합 특성을 가지며 형성된다는 것을 밝히고, 경계요소의 결합에 따른 전이공간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내·외부공간과 전이공간의 개념을 고찰하고, 구축적 형태를 기준으로 부가형, 절삭형, 연결형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겸임교수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정교수

1) 조일영, 우리나라 도시단독주택에 나타난 건축적 외부공간의 유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1, p.77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 현대단독주택으로 2001년에서 2007년까지 완공된 단독주택들로서, '건축과 환경' 'Space' 및 'CA' 잡지에 수록된 작품들로 대지의 영역이 가시적, 비가시적 경계를 가진 주택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영역은 주변환경을 배제하고, 대지 내 마당을 완전한 외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완전한 내부공간과 연결하는 전이공간만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볼 때 담과 마당과의 관계도 전이공간에 속하나, 본 연구에서는 내·외부공간 전이공간의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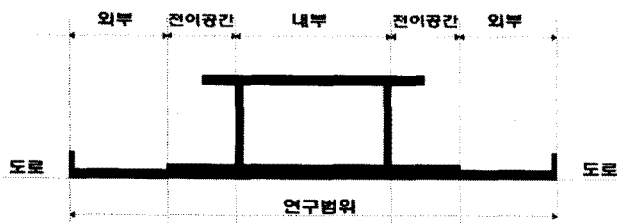
## 2. 전이공간의 경계적 특성과 유형

### 2.1. 내·외부공간의 형성과 전이공간

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건축공간은 바닥·벽·지붕과 같은 물리적인 경계요소에 의해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내부공간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외벽을 경계로 두고 지붕이 있는 곳을 내부, 그 반대의 경우를 외부라고 간주하지만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고, 복합화된 다양한 공간이 생겨나면서 내·외부를 쉽사리 규정짓기는 힘들다.

우리나라 주거의 경우로 볼 때, 좌식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곳을 실내라고 일컫는다.<sup>2)</sup> 즉, 신발을 신은 곳을 외부, 신발을 벗은 곳은 내부로 구분한다. 하지만 현대 건축에 나타난 중정과 천창 등, 실내에 자연과 빛을 받아들이는 공간들이 점차 생겨나면서 단편적으로 내·외부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 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외기에 닫혀진 부분을 내부공간으로, 외기에 열려진 부분을 외부공간으로 규정한다. 또한 전이공간은 주변환경을 배제하고, 순수한 외부공간과 순수한 내부공간<sup>3)</sup>의 경계 지점에서 생성되는 공간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내·외부공간의 경계는 거주자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전이 일어나고,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전이공간으로 형성된다.

2)이영실, 우리나라 주택에 있어서 외부공간의 구성방식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중앙대석사논문, 2001, p.55

3)박경숙, 한국주거건축 경계구조의 특성과 변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2004, p.22

### 2.2. 전이공간의 경계적 특성과 유형





90년대 이후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연계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주택의 내부공간의 연장, 전이공간, 내·외부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졌고, 전이공간의 다양한 형태가 요구되어졌다.

주택의 매스의 분절, 모서리의 분절, 면의 부가, 건물과 일체화된 프레임 등의 다양한 건축적 어휘가 나타나면서 여러 형태의 전이공간이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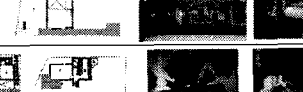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내·외부 간의 전이공간은 구축적 형태를 기준으로 부가형, 절삭형, 연결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은 데크, 발코니, 포치, 중정의 형태로 나타나며 형태적, 사회적 으로 내·외부공간을 연결 완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가형의 경우 내부공간에서 연장되어 나타나는 형태로 내부공간의 외부화가 일어나는 경우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절삭형의 경우 위의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 할 수 있다.

<표 1> 전이공간의 유형

구분	유형	
부가형 	데크	- 1층의 바닥이 외부공간으로 확장되거나 매스가 본체로부터 돌출되어 그 상부가 데크로 이용되는 형태
	발코니	- 2층의 바닥이 외부로 돌출한 형태
	포치	- 현관진입시 새로운 경계적 요소가 부가된 형태
절삭형  	데크	- 볼륨의 일부가 삭제되어 나머지 볼륨에 의해 공간구획이 일어나는 형태
	포치	- 현관을 평면에 삽입하여 2층의 매스 볼륨이 캐노피 기능 등을 수행하는 형태
	중정	- 3면 이상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자연을 끌어들이는 형태
연결형 	- 분절된 매스를 연결하는 형태	

<표 2> 한국 현대주택의 전이공간 유형분석

주택	도면 및 이미지	부가형				절삭형			연결형		전이 공간수	
		데크		발코니	포치	데크	포치	중정	B	B'		
		A	A'									
2001	국우동 W씨주택					a-ㄱ e-ㄷ e-ㄷ	○	II			5	
	단설		S2		S2 S2	○					5	
2002	과천38 주택		S2	S2			e-ㄹ	○			4	
	와선재			S1			d-L	○	II		4	
	안골주택		S2		S2 S3		a-L a-L a-L	○	II		8	
	수놓당		S2 S2	S2 S2		○			I I		7	
	10주택		S1	S2		○					3	
	산빛마당		S1		S2 S2	○	c-ㄹ			○ ○	○	8
	풍경이있는집		S1				a-L a-C b-ㄱ	○				5
2003	의왕33 주택		S1 S1	S2			a-L	○			5	
	화성주택				S3	○	d-C e d-L		I		6	
	생곡주택					○	a-L b-C b-C				4	
	세마당집		S1 S3	S2			a-L	○	I II		7	
	응암동 주택		S1			○	a-L				3	
	연하당		S1 S1 S1			○	a-C a-C b-ㄹ		I		8	
2004	부동루				S2 S2		c-L d-C	○			5	
	민마루 은행나무집				S2	○	b-L			○ ○	5	
	물아당		S1 S1 S2								○	4
	녹성헌		S2				b-L c-C	○			○	5

<표 2> 한국 현대주택의 전이공간 유형분석

주택	도면 및 이미지	부가형				절삭형			연결형		전이 공간수	
		데크		발코니	포치	데크	포치	층정	B	B'		
		A	A'									
2004	U-on				S2 S2		a-L a-L d-L	○				6
	헤로헌		S2 S3				b-C c-Γ		I I	○		7
	K주택		S1					○	II	○		5
	상선재		S1									3
	Residence A				S2 S2			○				3
2005	Maison 351		S1				e				○	4
	Tox box house		S2 S2				a-L c-L	○	II			6
	비움 I 일산주택6						c-ㄷ		II		○	4
	염곡동 P주택								II			1
	영종도 주택							○	II			2
	천안 유랑동주택		S2 S2	S2	S2			○	I			5
	자경헌		S2 S2					○	a-C c-C			
오름 묵방리 주택		S1 S1 S1		S2 S2			d-L	○				7
2006	용인 고거리 주택		S1	S1			b-L	○				4
2007	Light House						○	a-L a-L a-L				4
	Forest House		S1				c-Γ c-Γ c-Γ c-L	○	III			7
	Re- Void		S1 S2				a-L b-ㄷ	○			○	6
	해심헌						a-Γ a-L	○				3
합계		48		17	15	53	19	18	12		182	

A : 슬라브 부가 A' : 볼룸부가 B : 전면연결형 B' : 측면연결형 S1 : STEP1 S2 : STEP2 S3 : STEP3

### 3. 한국 현대단독주택의 전이공간 유형분석

#### 3.1. 형태적 유형

사례대상 주택에서 나타나는 전이공간은 평균 4.8개로 한 주택에서 약 5개의 전이공간이 나타난다. 주택에 따라 작가의 건축적 개념에 의해 특정전이공간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주택에서 여러 유형의 전이공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부가형

부가형은 바닥이 부가되어 연장된 형태로 나타나며, 그 형태 유형은 단계적인 변화를 갖는다. 1단계 바닥의 연장되는 것을 바탕으로, 캐노피 혹은 지붕의 연장되는 2단계 경계요소가 부가되고, 핸드레일 혹은 솔리드한 재료가 부가되어 낮은 벽체가 생성되는 3단계로 이어져, 공간의 경계를 조절하고 있다.

<표 3> 부가형 전이공간

		유형				
		STEP-1	STEP-2		STEP-3	
데크	솔리드 부가					
	블룸 부가					
발코니						



<그림 2> 사례 2. 단설의 포치



<그림 3> 사례 5. 안골주택의 발코니



<그림 4> 사례 10. 의왕주택의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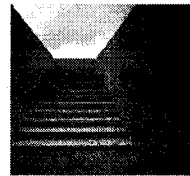
포치의 경우 현관의 입구성을 강조하고 내부로의 진입공간으로서 캐노피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현관 앞의 포치에 개방된 형태의 구조물을 부가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 (2) 절삭형

절삭형은 완벽한 블룸에서 일부의 공간이 삭제되어 외부공간이 형성되는 형태이다. 블룸이 삭제된 형태자체를 그대로 전이공간화 하는 형태에서 시작되어 나머지 블룸에 의해 삭제된 블룸의 공간이 구획되어지거나, 프레임 등이 부가되어 삭제되어진 블룸의 공간구획이 일어난다.

<표 4> 절삭형 전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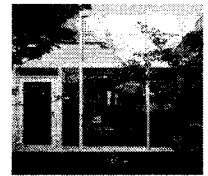
	유형				
	단면				
평면					
중정					



<그림 5> 사례 26. 오감독주택의 데크



<그림 6> 사례 36. re-void 절삭데크



<그림 7> 사례 13. 세마당집의 중정

포치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기능을 평면 속에 현관을 관입시킴으로서 형태를 가진다.

중정의 경우, 건물의 내부의 중심에서 일부 블룸이 절삭되어 완벽한 내부의 공간에 의해 둘러싸여진 경우와 한쪽으로 치우쳐진 형태에서 담에 의해 중정의 형태를 갖는다.

##### (3) 연결형

연결형은 매스의 분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이공간의 연결에서 나타난다. 매스의 연결위치에 따라, 전면에서 연결하는 경우와 측면에서 연결하는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은 연결된 내부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표 5> 연결형 전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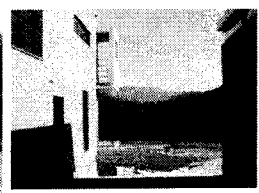
	유형	
	연결형	
	전면연결형	측면연결형



<그림 8> 사례 27. 일산주택연결공간



<그림 9> 사례 18. 물아당 측면연결형



<그림 10> 사례 8. 산빛마당의 측면연결형

### 3.2. 기능적 유형과 재료

전이공간과 연결된 실의 분포를 보면 사적공간인 방과 공용공간인 거실과 가족실, 식당이 주를 이룬다. 방과 연결한 전이공간은 사유공간의 연장기능을 수행하고 공용공간과 연결한 전이공간은 공적공간으로서 내부공간의 연장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공간의 기능 연장만이 아니라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완충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바닥면의 재료를 내부공간의 재료를 연장하기보다는 외부재료인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내부와 외부의 전이를 꾀하고 있다.

핸드레일 등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요소는 목재와 콘크리트로 외부마감재에서 연장되어 나타난다. 공간의 확장성이 강한 유리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을 우선시 하여 사용이 지양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 4. 결론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완공된 37개의 한국 현대 단독주택 전이공간의 경계적 특성에 관해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 전이공간은 구축된 형태를 바탕으로 크게 부가형, 절삭형, 연결형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유형은 데크, 발코니, 포치, 중정 등의 전이공간에서 단계적인 경계구조를 가지며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형과 절삭형의 각 유형은 바닥, 천장, 벽의 물리적인 경계요소가 단계적으로 삽입되어 공간의 위요와 경계를 조절한다.

둘째, 부가형에서 데크는 바닥으로 연장되어 캐노피가 부가된 유형과 바닥이 연장되고 핸드레일이 형성된 유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데크는 바닥, 천정의 2단계 경계요소가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발코니는 바닥과 수직적 벽 요소인 핸드레일이 부가되는 유형이 지배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절삭형은 3면이 위요되고 한면이 전면 개방되는 유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사적공간인 방과 연결하여 위요감이 높은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넷째, 연결형은 매스의 분절로 인해 생긴 사이공간을 연결하는 형태로, 인접한 두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공간의 기능과 독자적인 공간으로도 사용된다.

사례분석결과 전이공간과 가장 인접하여 나타나는 실은 방과 공용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내부공간의 외부화 과정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절삭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매스의 분절 등 현대 건축어휘의 영향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현대단독주택은 거주자의 요

구와 주거 내에서 복합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공간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내·외부를 연결하는 전이공간은 그 자체로서 뚜렷한 성격을 지닌 건축적 공간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결과, 전이공간의 유형이 하나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도기적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례대상 범위가 2001년~2007년 사이의 짧은 기간으로 한정되어 정확한 분석을 도출할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보다 광범위한 사례를 통한 분석이 요구되어 진다.

### 참고문헌

1. 이규목, 도시와 건축의 중간영역, 공간, 통권 215호 1985.5
2. 조일영, 우리나라 도시단독주택에 나타난 건축적 외부공간의 유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1
3. 이영실, 우리나라 주택에 있어서 외부공간의 구성방식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중앙대석사논문, 2001
4. 광경숙, 한국주거건축 경계구조의 특성과 변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박사논문, 2004